

미혼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및 결혼관련 미디어 노출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서영숙¹, 정추영^{1*}, 강복희¹, 조은하²

¹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²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Ego-identity, Family strength and Media exposure Related on impact of Marital consciousness: Focused Single Man and Women in College Students

Young-sook Seo¹, Chu-young Jeong^{1*}, Bok-Hee Kang¹, Eun-ha Cho²

¹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Daegu-Health

²Visiting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Buk Science College

(Received February 27, 2019; Revised March 20, 2019; Accepted April 14, 2019)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basic data that I can provide the guidelines in order to the single man and women of the college students have positive the marital consciousness.

Method: The subjects were 180 people as single man and women recruited from 3 college located in B c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with the PASW 21.0 program.

Results: The result to implement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is that the media perception from the woman and family strength are affected the significant influence($p=.007$, $p=.015$) and explanation powers were 21.2%. The ego-identity from the man is affected the significant influence and R^2 were 10.9%. When looking through this results of the research, the man can be affected by the internal factor and the women can know to be influenced by the external factor.

Conclusion: Accordingly, through the sex custom education the man decide to family strength, the women strengthens the factor which is internal than the external factor and it is positive, it is effective to form the outlook on marriage.

Key Words : Ego-identity, Family health, Marriage, Media

*Corresponding author : jcy0902@dhc.ac.k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당연시 하는 인식이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반면 현대의 젊은 세대는 결혼 자체를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¹⁾.

인간은 가정이라는 사회적 공동체 안에 가족 구성원으로 관계를 시작하며 부모와 가정은 자녀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교육환경이다²⁾.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이며 동시에 인간이 일생동안 성취해야하는 과업으로 이 시기의 정체감 확립이 지속적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자아정체감 형성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만³⁾, 특히 가정환경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인격 형성의 틀이 되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⁴⁾.

가족건강성은 가족의 구조나 형태가 아닌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⁵⁾,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하므로 외적인 기능 측면으로만 판단하는 경우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⁶⁾. 유년시절을 건강한 가족에서 보낸 개인은 안정적인 성숙과 발달을 도모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가족은 가족 내 스트레스와 폭력까지 야기할 수 있다⁷⁾. 선행연구들에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⁸⁾⁹⁾.

최근에는 TV미디어를 통해 가상 결혼, 실제 부부의 생활 영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스마트 폰과 같은 매체의 발달로 인해 접근이 용이하여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미디어를 통한 간접경험은 정보 처리와 인지 과정을 거쳐 개인의 사고를 재구성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매체는 외부세계나 사회현실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¹⁰⁾¹¹⁾, 결혼관련 미디어 노출이 개인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결혼은 인간의 생애과정에서 겪는 큰 사건으

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혼관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들이다¹⁰⁾¹¹⁾. 따라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⁵⁾¹²⁾.

본 연구에서는 미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및 결혼관련 미디어 노출 등이 개인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좀 더 긍정적인 결혼관 즉, 결혼 친화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자료 개발의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및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결혼관련 미디어 노출, 결혼관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결혼관련 미디어 노출, 결혼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및 결혼관련 미디어 노출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B지역에 소재하는 3개 대학 2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자료 수집은 사전에 각 대학의 해당 학과에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익명성과 윤리적 측면을 보장함을 전제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4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였으며, 자가 질문지법을 이용하였고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15분이었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version 3.1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 표본 크기 산출을 위해 유의수준 (α) .05, 효과크기(effect size) .02, 검정력(1- β) .90으로 설정하여 178명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204부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24부를 제외한 총 18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Park(1996)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Kim¹³⁾가 재구성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부정적인 내용은 역으로 확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¹³⁾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7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86이었다.

2.3.2.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Eo와 Yoo¹⁴⁾가 제작한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4문항이며,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다. 총체적인 가족의 건강성 및 각 하위요인별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 수준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Eo와 Yoo¹⁴⁾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95이었다.

2.3.3.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에 대해 측정하기 위해 Busselle(2001)의 텔레비전 현실감 측정 문항과 Ban(2012)의 인지된 현실감 측정 도구를 Yang¹⁵⁾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매우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된 현실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ang¹⁵⁾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4이었다.

2.3.4. 결혼관

결혼관을 파악하기 위해 Jung 등(1997)이 개발하고 Lee¹⁶⁾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다. 결혼관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며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결혼 친화적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ee¹⁶⁾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1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 결혼관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 결혼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결과에서 성별은 남성 94명, 여성 86명, 평균나이는 22.4세로 나타났다. 출생순위가 첫째인 대상자는 남성 53.2%, 여성 43.0%이었으며, 가족유형은 부모님 모두 계신 경우 남성 88.3%, 여성 83.7%로 나타났다. 부모님 결혼 상태는 초혼이 남성 88.3%, 여성 81.4%이었다.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성 80.9%, 여성 74.4%이었고, 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남성 70.2%, 여성 38.4%로 나타났다(Table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N=180)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	Female
		(n=94) n(%)	(n=86) n(%)
Age	Mean: 22.4		
Birth order	1s.	50 (53.2)	37 (43.0)
	2nd	39 (41.5)	44 (51.2)
	3rd	5 (5.3)	5 (2.8)
Family pattern	Parent	83 (88.3)	72 (83.7)
	Single parent	11 (11.7)	13 (15.1)
	Grandparents	0 (0.0)	2 (2.3)
Married conditions of parent	First married	83 (88.3)	70 (81.4)
	Single	10 (10.6)	14 (16.3)
	Remarriage	2 (2.1)	2 (2.3)
Experience of heterosexuality	Yes	76 (80.9)	64 (74.4)
	No	18 (19.1)	22 (25.6)
Experience of sex	Yes	66 (70.2)	33 (38.4)
	No	28 (29.8)	53 (61.6)

3.2.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및 결혼 관련 노출과 결혼관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및 결혼관 관련 미디어 노출과 결혼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변수의 평균값은 자아정체감은 남성 3.60점, 여성 3.38점이었으며, 가족건강성은 남성

3.38점, 여성 3.33점이었다. 미디어 이용정도는 남성 3.26점, 여성 3.83점, 미디어 인지정도는 남성 2.34점, 여성 4.42점이었다. 결혼관은 남성 3.33점, 여성 3.03점이었다.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미디어 이용정도, 결혼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인지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59, p=.025$)(Table2).

Table 2. Difference and Degree on Variable (N=180)

Categories	Male	Female	t(p)
	M±SD		
Ego identity	3.60±0.57	3.38±0.59	2.006 (.933)
Family strength	3.38±0.68	3.33±0.74	.344 (.550)
Use degree of media	3.26±1.06	3.83±1.00	-2.958 (.511)
Perception degree of media	2.34±0.71	4.42±0.55	-.359 (.025)
Marital consciousness	3.33±0.41	3.03±0.41	3.838 (.703)

3.3.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및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 결혼관의 상관관계

남성의 경우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465, p=.000$). 미디어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미디어 이용정도도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491, p=.000$). 결혼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330, p=.011$).

여성의 경우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357, p=.007$). 결혼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자아정체감이 높고($r=.287, p=.034$),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았으며($r=.306, p=.023$), 미디어 인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342, p=.011$). 여성의 결혼관은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미디어 인지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3).

Table 3. Correlations of on Variable (N=180)

Gender Categories	A	B	C	D	E
Male (n=58)	A	1			
	B	.465**	1		
	C	.113	.117	1	
	D	.007	.027	.491**	1
	E	.330*	.239	.017	.084
Female (n=55)	A	1			
	B	.357**	1		
	C	-.030	.055	1	
	D	-.004	-.009	.055	1
	E	.287*	.306*	-.037	.342*

*p<0.05 **p<.001

A; Ego identity, B; Family strength, C; Use degree of media,

D; Perception degree of media, E; Marital consciousness

3.4. 대상자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가 지각한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은 독립변수 중 자아정체감($\beta=.330, p=.011$)이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10.9%이었다. 여성의 결혼관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모델 I에서는 미디어 인지정도가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미디어 인지정도의 설명력은 11.7%이었으며,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모델 II에서는 미디어 인지정도 독립변수에 가족건강성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두 독립변수가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21.2%였으며, 결혼관에 미디어 인지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Table4).

Table 4. Factors affecting on Marital consciousness of the subjects (N=180)

Variable	Marital consciousness		
	B	β	t(p)
Ego identity	.454	.330	2.616 (.011)
Constant		.330	
R ²		.109	
F		6.844**	

Variable	Model I			Model II		
	B	β	t(p)	B	β	t(p)
Perception degree of media	.984	.347	2.647 (.011)	.991	.344	2.798 (.007)
Family strength				.116	.309	2.512 (.015)
Constant		.342			.461	
R ²		.117			.212	
F		7.005**			7.009	

*p<0.5 **p<.001

4. 논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 결혼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각 변수에 대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결혼관이 높았으며, 여성은 미디어 이용정도와 미디어 인지정도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Kim¹⁷⁾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아정체감 점수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족건강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자신의 가족을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¹⁸⁾.

미디어 인지정도는 남성과 여성 간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025$). 이는 여성이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 영역 중 미디어 인지정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미디어 인지정도는 결혼 관련 미디어에 대한 몰입에 따라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He¹⁹⁾의 미혼의 20대 중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대상자

들은 자신의 모습과 유사한 가상의 아내에게 감정입을 하고 몰입도가 클수록 가상의 남편과 나누는 낭만적 사랑을 자신이 원하는 사랑의 기준으로 받아들여 현실에서도 유사한 경험을 원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둘째,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 결혼관의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 남성은 개인적 요인인 자아정체감이 여성은 개인적 요인인 자아정체감, 가족적 요인인 가족건강성, 환경적 요인인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미디어 이용정도, 미디어 인지정도)이 결혼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중회귀분석결과 여성은 자아정체감을 제외한 가족건강성과 미디어 인지정도가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은 개인적 요인의 내적 요인, 여성은 가족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의 외적 요인에 따라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Lee²⁰⁾의 연구에서 남학생들의 자아분화 수준도 결혼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결혼관 형성에 자신의 인식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Han²¹⁾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관점과 육아가 여성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결혼을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보다 사회적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관 관련 요인 중 환경적 요인으로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랑과 결혼이 주요 소재가 되는 TV 드라마에 노출된 대상자들이 TV 미디어를 통해 인지된 현실감에 따라 지각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다⁸⁾⁹⁾¹⁵⁾¹⁶⁾.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결혼관 중 미디어 이용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미디어 인지정도는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관련 미디어 노출에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몰입하느냐?'가 대상자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대 미혼남녀 대학생의 결혼관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으로 개인적 요인은 자아정체감, 가족적 요인은 가족건강성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결혼관련 미디어 노출을 변수로 20대 미혼남녀 대학생의 결혼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은 남성이 더 높았다. 미디어 이용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았으며 미디어 인지정도는 남성 평균 14.02점, 여성 평균 76.53점으로 여성의 미디어 인지정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59$, $p=.025$).

둘째,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 결혼관의 상관관계에서는 자아정체감은 남성, 여성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미디어 인지정도는 여성이 $p=.011$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대상자의 결혼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은 자아정체감, 여성은 가족건강성과 미디어 인지정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내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여성은 가족이나 환경적인 부분인 외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3개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남성은 내적 요인이, 여성은 외적 요인이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혼관관련 교육 시 성별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관련 미디어 노출의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이용정도 측정 부분을 구체화하여 조사할 것과 인지된 현실감 도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결혼관련 미디어 노출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을 위한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Park SH.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perceptions of marriag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2016;22(6):207-232
2. Lee SM.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level and family strengths on stress perception level and stress coping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14;18(4): 239-260.
3. Eo YS, Lee GR, Choi SS. Ego-identity, self-efficacy and the independence of his parents with college adjustment in freshman of nursing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1;13(6):3073-3084.
4. Park JH, Lee SH. A study of the maturity of psycho-social by identity status and identity styl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3; 14(2):1015-1032.
5. Son GH, Kim NH, Lee ES. The study on the family strengths, idea of marriage and childbirth wil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9;9(1):719-728.
6. Jang WH, Yu SR. Mediating effect of child's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family strength, *Journal of Parent Education*, 2019;11(1): 29-46.
7. Park NS. The effects of ego identity status on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level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5;17(1):197-215.
8. Kim NJ, Ko SJ.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marriag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4):178-185.
9. Piao YS, Na EK. The effect of television romance drama on viewers' fantasy of idealistic marriag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2018;18(2):583-591.
10. Lee JE, Lee YH. The effect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self-esteem on marital satisfaction of the husbands: mediation of self-disclosur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2;13(6):2543-2555.
11. Jeong MK.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commitment, negative conflict coping styles, and marital satisfaction, *Family and culture*, 2016;28(2): 249-278.
12. Kwon SH, Lee J, Song KM, Kim SM. Study on establishing marriage and birth-friendly valu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2010;3:1-22.
13. Kim SK. The effect of family- of- origin' s emotional health and ego- identity on psychological well- being of married adults,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1.
14. Eo EJ, Yoo YJ.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measuring family strength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 1995;13(1):145 - 156.
15. Yang AL. A comparative study of television reality program in korean 'We Are Married' and Chinese 'If You Are The One': The influence to marriage view of college students,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Daeji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16. Lee JW. Comparative study of self-differentiation and relationship with parents to the outlook on marriage betwee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17. Kim YR. A study on the marriage value and it's associated variables for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based on the family ecological theory, *Doctor's Thesis Chung-Ang*

- University, 2009.
18. Kim HJ. Relationship among subjective well-being, self-identity and family fun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2014;14(2):376-386.
 19. He XL. The study on the method which chinese Women in their twenties use to accept korean reality programs ;Around the analysis on the 'We have married',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20. Lee SY. Comparative study of self-differentiation and relationship with parents to the outlook on marriage betwee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 Department of Family Studies, Graduate School, Inje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21. Han GS. Semiotic study related to the perspective of marriage in TV dramas: With focus on JTBC TV drama 'Can we get married', Department of Newspaper and Broadcasting The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Dong G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20. Lee SY. Comparative study of self-